

유지

광주전남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 - 가정은 위한 대표자 모임 제안서

- ♥ 발 신 : 13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협의회
- ♥ 수 신 :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 총여학생회 및 여학생 대표자
- ♥ 용 도 :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투쟁계의

눈을 어디로 돌리든 곳곳의 푸르름만 느껴지는 5월입니다.

바람도 차갑지 않고 서늘하니 이제는 초여름의 문턱에 바짝 다가와 있는 느낌뿐입니다.

처음이라는 어색함, 속스러움, 그리고 미안함. 무엇이 그리도 바빴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13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 민족조선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 정영란입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 더없이 반갑고 기쁩니다. 각 대학에서 학우들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신 없을 5월인데 이렇게 각 대학의 대표자들의 모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듯이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은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비롯,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 강연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열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학칙을 제정하려는 대학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성폭력 학칙은 몇몇 간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술자리 혹은 친분관계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성폭력들과 잘못된 성인식은 쉽사리 근절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학우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성문화와 대학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히 하는 동시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학우들과 교수, 교직원의 힘으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알게모르게 일어나서 아무런 대책없이 넘어가고 은폐되지는 대학내의 성폭력에 대해 그 심각성을 알려내고 왜곡된 성문화 개선과 예방을 이루어 내기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기 남녀대협에서는 성폭력 학칙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실제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전남지역 공동의 문제이고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전체 단결된 힘으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한 개대학만이 할 때는 너무 힘이 들지도 모르지만 단결된 힘으로 모든 대학 총여학생회가 함께 한다면 학우들의 힘으로 꼭 이루어낼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이지역에 있는 여성단체연합도 함께하여 이지역사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하여 광주전남지역대학의 집단적인 힘, 5만 여학우의 힘으로 성폭력을 근절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성폭력규제학칙을 제정 해내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셔서 광주전남지역대표자들의 의지를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10일 늦은 5시 웃는 모습으로 봅시다.

성폭력 학칙 제개정을 위한 남녀대협 5.6월 계획

1. 들어가며

학교 별로 상황은 제각기 다르겠지만 학내에서의 성폭력은 이제 예사일이 아닌 너무나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성폭력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단순히 학생과 학생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수나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해 학내를 아니 사회까지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학내 성폭력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 만치 알게 모르게 빈번히 발생하고 은폐되고 있는 학내 성폭력은 확실한 방지기구나 처벌의 기준이 없어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대학의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성폭력을 방지하고 처벌하기위한 학칙제정과 올바른 학내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과 노력들이 각 대학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대학의 노력들을 이제 50만여학우의 대표조직인 남녀대협을 중심으로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학내성폭력근절과 학칙 제개정을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에도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투쟁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주체를 세워 함께 논의 하는 과정을 거쳐 남녀대협 차원의 공동대책위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대중적으로 성폭력을 척결하는 투쟁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2. 방향과 목표

1. 학내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를 대중적으로 알려내고 성폭력 학칙제정의 공분을 모아내자.
2. 광주 전남 지역의 각 대학들에 성폭력 학칙제정의 요구를 모아 공동대책위를 구성한다.
3. 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지역 여성 단체와 연대하여 전체적이고 원칙적인 문제로 성폭력 학칙제정과 성폭력 근절투쟁을 벌여나간다.
4.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까지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남녀대협과 여학생운동의 주체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까지 상승시킨다.
5. 각 대학 대표자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모임속에서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고 합의하여 대중적인 실천 투쟁을 결의한다.
6. 각 대학의 상황과 조건을 잘 파악하기 위해 기층의 실사 작업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3. 대학별 선전의식화 방도

- 사회에 만연된 성폭력의 문제들과 그원인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자.
- 학내 성폭력 설문과 실태조사를 통해 심각성을 알려내자.
- 학칙 제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의식화하자.
- 성폭력 신고 뼈나 전화게설등 여학생회가 신고접수를 하는 것을 알리자.

4. 남녀대협 선전의식화방도

- 스티커 제작이나 기획 자보 신문 발간
- 설문조사 의견 개진 운동
- 학우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대학우 서명운동 진행

5. 시기별 흐름

1시기 5월 1일 ~ 7일

공동대책위 투쟁활동계획서 제출하는 시기

- 대표자모임 제안
- 학칙제개정의 방향과 내용 잡기

2시기 5월 8일 ~ 6월 10일

각 대학 흐름 만들어 가는 시기

- 공동대책위 구성
- 서명운동, 설문조사사업, 스티커제작배포, 남녀대협 차원의 세미나 개최
- 지역여성단체와 연대

3시기 6월 말

구체적 투쟁 조직화 하여 성폭력 학칙을 제개정하는 시기

- 전반적 요구사항으로 대학본부와 면담 꾸준히 진행
- 교육부에 학칙제정요구에 대한 서한 보내기

▶ 일 시 : 5월 10일 5시

▶ 장 소 : 전남대 총여학생회실 (1학생회관 2층, 530-0590)

▶ 모임 내용

@ 각 대학 성폭력의 실태와 처리방법을 함께 얘기 합니다.

- 올 한해 동안 일어나 총여학생회로 접수된 성폭력 사례
- 성폭력 화치이 있는지의 여부

@ 성폭력 학치제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 (가)의 구성과 이후 계획 논의

- 공동대책위의 구성에 대한 설명
- 공동대책위 의결
- 의결된 후 공동대책위 계획 논의

@ 기타

- 학부론과 (성폭력 학치제개정을 같이 거론하는)
- 서명대사
- 스타가드
- 세미나.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3기 광/주/전/남/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